



##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형제 회 장소;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 Tor, Ont M3C 1W1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t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johnvianney@hotmail.com

형제 회 일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 제 32 호

### 3 월 형제 회 소식

2008 년 3 월 29 일

####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9 시 - 미사
- 오전 10 시- 영적 보조 수녀님 말씀
- 오전 11 시 - 월례회
- 정오 12 시 - 친교

#### 봉사자 보고

\* 4 월 월례회는 4 월 26 일(토)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합니다.

\* 3 월 12 일(수) 첫 신임 평의회에서 도서 담당- 임 종석 어거스틴 형제 친교 담당 - 전 진심 아네스 자매가 선임 되었고 복한 선교 후원회 담당 - 정 태연 글라라 자매가 유임 되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신임 평의회 회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 8 차 북남미 연수회 참가 배당 인원이 전임 박 종국 회장님의 수고로 14 명으로 확정 되었으며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2008 년 4 월 20 일(일) 미국 성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창설 15 주년 기념식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축하 카드를 보낼 예정입니다.

\* 2008 년 2 월 23 일(토) 총회 및 선거가 지구형제회 Irene McEvers, Area Counselor 와 허영식 스테파노 부회장이 서기로 참석 선거를 주관하였으며 50 명의 선거 유권자가 참석 하였고 투표 검사인으로 이 명자 레지나, 송 완호 미카엘 두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결과; 회장 - 이 선영 하상 바오로, 부회장 - 오 상열 안드레아, 서기 - 강 혜자 루실라, 회계 -

권 경수 마리아, 양성 - 이 계획 로사리아 등 선출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드리고 새 평의회 회원들께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08 년 3 월 5 일(수) 입회반에 한병철 안드레아님의 어머니 한 분례 안나님이 선종 하셨습니다.

+ 심(이) 옥봉 레지나 자매가 St. Michael Hospital 에 입원 중 이십니다. 확실한 병 명을 몰라서 계속 검사 중 이라고 합니다.

+ 차 화숙 세실리아 자매가 허리 수술을 하기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 지원반 이숙 비비안나 자매 어머니가 한국에서 뇌 관련(검사 중) 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 신임 봉사자의 인사 말씀

이 선영 마리아 하상 바오로. ofs  
모든 형제, 자매 회원님들과 각 가정에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합니다. 프란치스코로서 덕도 갖추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제가 봉사자로 선출되고 보니 1996.2.11. 우리 형제회가 설립된 이래로 12 년간 양적, 질적으로 형제회를 눈부시게 발전시켜 오신 역대 영적 보조 신부님, 수녀님, 전임 봉사자들과 평의회원들 그리고 평의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신 회원들의 업적에 누나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덕도 능력도 없는 저를 봉사자로 뽑아 세우셔서 앞으로 형제회가 이룩해 나갈 모든 일들이 당신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걱정은 많이 없어지고 기도로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은 사람의 뜻과는 다르셨습니다. 한 없이 부족한 봉사자인 제게 덕과 재능을 갖추신 평의회원들을 뽑으셔서 함께 일하도록 배려하시고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아름다운 형제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소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신 평의회의 목표와 협조 사항을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국가 형제회가 펴낸 재속 프란치스칸에 관련된 Handbook 에 의하면 바람직한 형제회는 가족적인 모임이어야 하며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 완전히 잠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칙, 회헌에 충실한 형제회 운영과 영속적 양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적 모임이 되기 위하여 서로 얼굴만 마주봐도 좋아서 웃음을 참지 못했던 초기 공동체 형제들과 같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로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프란치스칸 삶의 여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병들과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사부님께서 그러 하셨듯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며 그러한 역경에 처한 회원이 계신 것을 아시는 분은 평의회원 중 누구에게라도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 탄생한 정권과 국민, 언론 사이에 100 일 간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실수나 미숙한 정책은 봐주는 기간이지요. 100 일 동안 빨리 자리 잡으라고 아량 있게 관용을 베푸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 비유가 딱히 들어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번 새로 구성된 평의회도 미숙하고 실수가 눈에 많이 띄더라도 100 일간만 눈 딱 감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사부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 저희 형제회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알려드립니다

각 구역 모임 보고를 하여주신 봉사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구역보고를 소식지에 실리지 못하고 특별 사항만 알려드립니다.

- 야고바 구역 봉사자로 정 진숙 줄리엤타 자매가 임명 되었습니다.
- 성 글라라 구역 봉사자로 김 효순 실비아 자매가 임명 되었습니다.

레오 구역 모임에서 기타 사항으로 영적 보조 수녀님과 함께 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 양성 보고

### <서약 준비반 >

담당; 오 성호 안드레아

일시; 2008 년 2 월 23 일(토) 오후 2:00 - 4:00

장소; 성 김 안드레아 성당 친교실

총인원;7 명 출석;7 명

주제; 교재 폰테 콜롬보 제 16 과 ‘하느님의 선물인 노동’ 노동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속 프란치스칸의 노동의 의미와 휴식(안식일)의 중요성 등을 공부했습니다.

### <입회반 >

담당; 이 계획 로사리아

일시; 2008 년 2 월 21 일(토) 오후 8 시 10 분-10 시

장소; 한맘 성당 2 층 3 호실

총인원;9 명 출석 9 명

주제; 교재 폰테 콜롬보 제 5 과(회칙 6 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재속 프란치스칸은 교회와의 친교 가운데서 즉 교회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교회를 쇄신하고 삶과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 <지원반>

담당; 이 선영 마리아 하상 바오로

일시; 2008 년 2 월 23 일(토) 오후 2 시- 4 시

장소; 예수 성심 성당 1 호실

총인원; 15 명(서울 형제회 위탁 교육 1 명 추가)

출석; 14 명

주제; 교재 아씨시 제 5 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3)’ 을 공부하였습니다.  
성인의 생애 중 오직 주님과 같아지려는 열정으로 받은 오상의 의미와 죽음을 자매로 맞이한 사부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죽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회계 보고

2008 년 2 월 29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4,862.08	\$1,000.00	\$521.88	\$5,340.20
선교	\$1,425.43	\$470.00	N/A	\$1,895.43

후원금				
도서 구입	\$710.00	\$472.19	N/A	1,182.19

영명 축일 축하합니다.

♥ 4 월 29 일(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

+++ 부활 신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 하는길 +++

<부활 메세지 인터넷에서>